

# 美ITC, 삼성 냉장고 덤핑 무혐의 판정

(국제무역위원회)

## “물량 감소 우려 해소” 협력업체·광주시·광주상의 환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상무부의 삼성전자 프렌치도어(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덤핑판결을 뒤엎고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지역 협력업체들은 크게 환영하며, 주춤했던 대미수출이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의 프렌치도어 냉장고 덤핑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에 참가한 5명 모두 ‘부정적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상무부가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보조금과 덤핑수출을 인정했으나, 위원회는 미국 관련 산업이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0일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이 제기한 한국산 프렌치도어 냉장고의 덤핑판매 혐의를 인정, 삼성전자·LG전자·일렉트로룩스 등 3개 업체에 최고 30.34%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광주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제품은 5.16%의 반덤핑 관세가 권고됐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산업이 위협받지 않았다”며 상무부의 덤핑 결정을 뒤엎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이번 제소의 부당함이 증명된 것”이라며 “삼성전은 앞으로도 미국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제

품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도 크게 환영했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18일 “국제무역위원회가 상무부의 삼성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148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덤핑 기각 판정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생산, 수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에도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삼성전자 냉장고 덤핑 무혐의 처리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였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세탁기의 반덤핑 제소도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냉

장고 덤핑 무혐의 결정은 지난 1월 미국 월풀사가 제기한 삼성전자 세탁기의 반덤핑 제소 최종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 특특튀는 영고객 아이디어

고객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18일 오후 광주신세계 백화점 대교육실에서 열린 ‘영고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한 전남대학교 미케팅 동아리팀 소속 학생들이 10~20대 젊은층

(광주신세계 제공)

# 프라임제약 바이오신약 생산 본격화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와 투자·기술 협력 MOU 체결

## 화순 연구센터에

## 100억원 규모 투자

바이오신약 개발의 원천기술을 확보한 한국프라임제약이 임상시험용 시료 생산에 본격 나섰다.

광주지역 제약업체인 한국프라임제약(대표이사 김대익)은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사에서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소장 박경남)와 바이오 의약품 개발·제조를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프라임제약은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의 제조·연구시설을 이용해 EPO(Erythropoietin·조혈제), 오렌시아, 엔브렐 바이오메타의 임상시료 및 완제품 생산에 돌입한다. 또 표적항암제, 혈소판증강제, 성장호르몬, 백혈구증강제 등의 제조·연구개발도 공동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화순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 내에 100억원 규모의 바이오신약 개발 투자를 할 계획이다.

한국프라임제약이 개발 중인 EPO는 4세대형 EPO로 혈압 상



김대익(왼쪽에서 세번째) 한국프라임제약 대표이사과 박경남(네번째)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 소장은 18일 광주시 동구 한국프라임제약 본사에서 바이오신약 개발·제조를 위한 투자 및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프라임제약 제공)

승·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낮아 만성심부전 환자 등 저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이 기술은 혈소판증강제·성장호르몬·인터페론·백혈구증강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EPO의 세계 시장 규모는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절염치료제로 사용되는 4가형 엔브렐과 오렌시아 개발물질은 기존 2가형보다 16배의 효능이 입증

된 것으로, 체내 지속성을 높여 환자 투여빈도를 4분의1로 줄일 수 있다. 투여량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도 없다. 엔브렐의 시장 규모는 10조원, 오렌시아는 매년 10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프라임제약은 바이오신약 개발의 연구성과가 좋아 올해 내에 이들 신약의 전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 IMF, 올 한국 경제성장률 3.5% 유지 내년은 4.0%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5%로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워싱턴에서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5%, 2013년에는 4.0%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1월 내놓은 수치와 같지만 지난해 9월 발표한 4.0%보다는 0.

5%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전망을 3.7%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올해 한국 경제 전망 자체가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고유가와 유럽 재정 위기로 지나치게 위축됐던 경제성장률이 통계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상 두바이유 가격이 10% 오

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 떨어진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성장률(1.0%)은 예상치(0.7%)를 웃돌았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3.4%를 기록하고서 내년에는 3.2%로 개선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IMF는 세계경제가 미국의 경기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최근 위기가 다소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FTA 기업지원 협의회’ 출범

광주전라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 출범식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은 1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광주,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 무역협회 등 FTA관련 15개 기관과 회의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출범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카드 못 만든다

앞으로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카드 한도도 실소득에 근거해 책정되고 이용자의 의사가 없어도 장기간 쓰지 않는 카드는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대책의 하나다.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한 점이다.

신용 6등급 이내의 만 20세 이상만 신규 카드발급이 가능해진다. 7등급 이하의 신용카드를 아예 만들 수가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8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현재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288만명이다. 사용자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기존 사용자도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용한도 적정성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며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합뉴스

## 버지니아 수퍼슬림 400원 인하

### 필립모리스, 23일부터 2500원으로

한국 필립모리스(주)(대표이사 정일우)가 버지니아 수퍼슬림 브랜드의 가격을 400원 인하한다.

현재 2900원에 판매 중인 버지니아 수퍼슬림은 오는 23일부터 2500원으로 13.7% 내린다.

한국 필립모리스는 이번 인하를 통해 초슬림 담배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초슬림 담배시장은 KT&G의 예세가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수퍼슬림의 점유율은 4.4%다.

하지만 지난 3월 BAT가 초슬림 담배인 보그브랜드의 가격을 2500원으로 인하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섰는데 이번에 필립모리스 역시 25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국내 초슬림 담



배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한국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버지니아 수퍼슬림의 높은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인하여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슬림형 담배의 가격은 이번 가격 인하로 2500원 가격대 제품의 판매량 비중이 79%로 높아지면서(닐슨 코리아·2011년 72%) 2500원 제품이 주력이 될 전망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04.53 (+19.23)
▲ 코스닥지수	503.63 (+3.25)
▼ 금리 (국고채 3년)	3.47% (-0.02)
▼ 원·달러 환율	1,137.30원 (+3.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같이] 바라고  
[같이] 꿈꾸고  
[같이] 해냈습니다

## 농협의 새로운 출발, 대한민국의 미래와 [같이]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모두가 꿈꿔왔던 농협의 변화, 전문화된 사업구조개편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